



"장가는 얹이 들고 시집은 높이 가렸다"

뜻: 옛날에는 남자는 자기보다 형편이 조금 어려운 집의 여자와, 여자는 자기보다 부유한 집의 남자와 결혼해야 서로 존중하고 잘 산다고 생각했어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결혼 · 재산 · 화목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장	가	는	↓	얹	이	↓	들	고		
시	집	은	↓	높	이	↓	가	렸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장	가	는	↓	얹	이	↓	들	고		
시	집	은	↓	높	이	↓	가	렸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	↓				↓		
				↓				↓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자그나] [ㅁㅁ] [나그] [사자오] [노오] [거르다]

웹에서 보기

